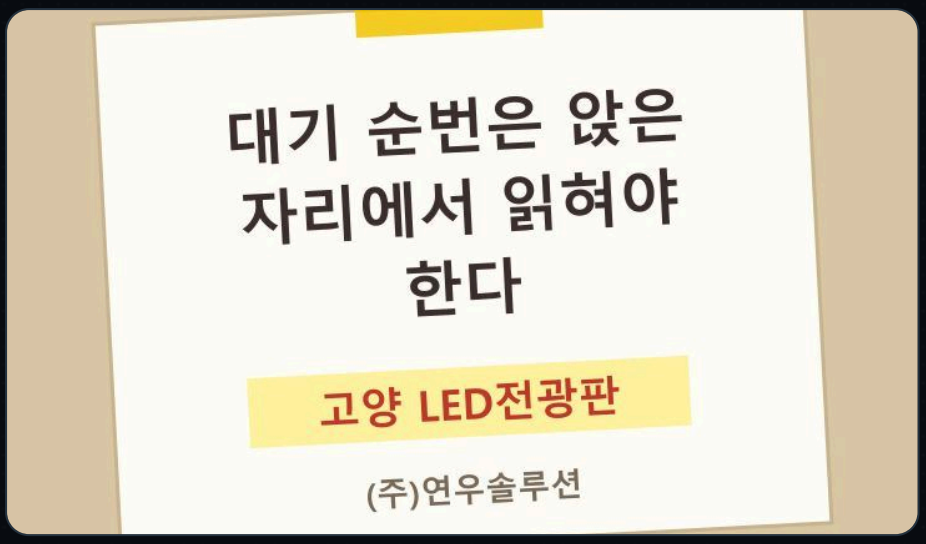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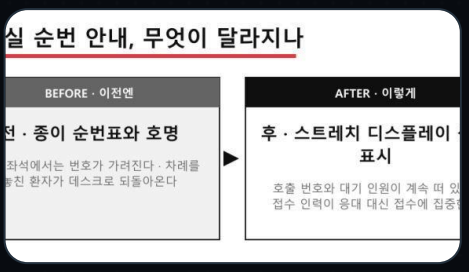
DID제품 기술 가이드 2026-09-07 · (주)연우솔루션 작성 · 사진 9장

대기 순번은 앉은 자리에서 읽혀야 한다

병원 대기실의 시간은 다른 곳보다 느리게 흐른다. 접수하고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화면부터 찾는다. 지금 부르는 번호가 몇 번인지,







원문 수록 이미지 · 원문 전체 사진은 홈페이지 현장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01 접수 데스크 위, 띠처럼 남는 자리가 있다

02 화면은 순번 발행기와 연결될 때 비로소 안내가 된다

03 하루 열두 시간을 매일 켜두는 화면은 따로 있다

본문 속 수치

40~50cm
문틀 위, 벽 몰딩 아래로 남는 공간이 40~50cm 남짓인 곳이 많다.

55인치
여기에 55인치 가로 패널을 억지로 올리면

65인치
좌석 정면 벽처럼 세로 여유가 있는 자리라면 55·65인치 단독 패널이 낫다.

16~24시간
상업용 DID 패널은 애초에 하루 16~24시간 연속 구동을 전제로 설계된다.

내 앞에 몇 사람이 남았는지.

그 숫자 하나가 보이지 않으면

대기실 전체가 조용히 불안해진다.

순번은 소리보다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한다

접수 데스크 앞의 풍경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다.

번호표를 뽑고, 벽에 붙은 종이 순번표를 보고, 간호사의 호명을 기다린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어긋날 때 생긴다.

호명은 데스크 근처에서만 들리고,

종이 순번표는 앞에 사람이 서면 그대로 가려진다.

적용 디스플레이
DID·사이니지 모니터 · 스트레치 디스플레이 · 룸사인·현황판

구성 요소
순번·예약 연동 · 네트워크·폐쇄망 · 전원·배선·배관 · 매입·인테리어 공사 · 고소·야간 작업

진행 단계
현장 실측 → 구성 제안·설계 → 설치·시공 → 운영·유지보수

관련 솔루션 병원 · 의료

이 가이드로 상담
☎ 010-2700-2648 · ✉ osskoreaing@gmail.com
원문 · 사진 전체: screenmaru.co.kr/blog/224403775028.html
연우솔루션 YEONWOO SOLUTION
기술 가이드 775028